

# 政治家 환경인

## 김상현(金相賢)선생(2)

글/사진 : 박 창 근  
< 본회 고문 / 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 3. '한국환경보호협의회' 창립

이 나라에 '유신(維新)'의 강풍이 불어 닥치고, '박정희' 정권의 눈의 가시였던 '김상현' 의원이 구속되자 월간 '다리' 지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신세가 되었다. 즉, 그동안 '다리' 지 발행에 돈을 대던 '김상현' 의원이 구속되자, '다리' 지 발행도 끝나게 된 것이다.

직원들도 모두 떠나고, 사무실도 문을 닫았다. '다리' 지 사무실 옆 건물에서 도서출판 '범우사'를 운영하던 '다리' 지의 법적 발행인이었던 '윤형두' 사장이 '다리' 지의 판권을 '문공부'에 반납하려고 챙기고 있었다.

"그래도 '다리' 지는 어떻게 끌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필자의 말에 발행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김의원도 없이... 무슨 돈으로... 이 '유신'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필자가 '다리' 지를 끌고 나가겠다고 자청했다.

'다리' 지 창간을 위하여, '사진협회'도 그만 두고 달려온 열정과 그동안 편집장으로 키워 온 애착, 그리고 물주(物主)가 구속되어 문을 닫아야 한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정의(情義)였다.

그래서 '유신'의 칼바람 앞에 맞섰다. 문학평론가 '임중빈' 씨를 주간(主幹)으로 위촉하고, '한승현(전, 감사원장)' 변호사님의 시청 앞 사무실, 한 구속에 편집실을 마련하고... 그렇게 2년여 '다리' 지를 끌고 나가다가... 끝내, '다리' 지를 '자진 폐간' 하기에 이른다. 자금이 쫓기면서도 2년여를 버텼지만, 곧 '남산(중앙정보부)'의 온갖 회유에 넘어갈 것 같아, '이문동'에 있던 집을 빗쟁이에게 넘겨 주고, 손을 단 것이다.



**\* 사진설명 :**

1989년 6월 1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제17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환경권 심포지엄' 개최때 김상현 회장(당시 한국환경보호협의회 신임회장이셨음.)님이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공로패도 전달하셨습니다.

지령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식으로 스스로 '다리' 지의 마지막 호를 발행하면서, 특집으로 '자유'를 대대적으로 다루고(최후의 발악), 내 뺀 것이다. 그 바람에 필자는 도망자의 신세로 방황하다, 2년 만에 감호 1급이라는 관대한(?) 처분으로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75년** 한국 최초의 민간 환경단체인 '한국환경보호협의회'를 창립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개발과 성장만이 경제발전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개발과 성장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문제도 안 되는 '새 발의 피'요. 설혹 문제가 된다고 하여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마땅히 희생되어야 할 문제라고 여기던 시절이라, 반공해(反公害), 환경보호는 반국가(反國家)행위로 치부되어, 정부 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다.

더구나 저 유명한 '월간 다리'지의 편집장과 발행인을 역임 했던 자가, 그 아리송한 환경보호의 깃발을 들고 다시 나타났으니, 사무실엔 직원보다 경찰과 기관원들의 수가 더 많아,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막 '서울지검장' 자리에서 종로 3가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고(故) '서주연' 선생을 찾아가 사실을 이야기 하고, 회장님으로 모심으로써, 사무실이 조용해질 수 있었다.

**1977년** 봄으로 생각한다.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위해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사진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패널 100판을 들고, 명동 UNESCO회관 앞 가두에 펼쳐 놓았다. 명동 길을 오가던 사람들이 무슨 패널 전시인가 싶어 패널 앞에 모였다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대기오염으로 4천명이 죽은 '런던 스모그 사건'과 수은오염으로 죽거나 정신 이상이 된 '미나마타 사건', 중금속으로 등이 흰 기형어 사진 등 공해로 인한 처절한 비극이 패널 가득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과 라디오가 대대적으로 이 캠페인을 보도했다. 이 기세에 놀려, 명동 파출소에서는 환경보호 계몽 방송을 하도록 거리 스피커 마이크를 필자에게 내 주었다. 필자는 하루 종일, 마이크에 대고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외쳐댔다. 틈틈이 정부의 개발과 성장 논리도 꼬집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서 출감한지 얼마 안 된, '김상현' 전, 의원이 검정색 바바리코트 차림으로 필자가 방송을 하고 있는 파출소 안으로 들어 왔다. 신문과 방송보도를 통해, 필자가 명동 거리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명동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리고 명동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는 필자의 환경 캠페인 방송을 듣고, 방송을 하고 있는 파출소로 온 것이다.

'김상현 의원을 알아보지 못한 한 젊은 경찰관이 제지하자, "나, 전에 국회에 있던 '김상현' 의원이에요" 하며, '김상현' 의원은 웃으면서 방송 중인 필자에게 다가와 필자의 어깨를 굳게 감싸며, 격려 했다. 오랜 자택 연금으로 수척해진 김의원을 보니, 분노가 솟구쳤다. 방송하던 필자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이무리 경제가 성장하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공해로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해는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을 병들게 하는데, 병든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당연히 병들게 마련이고, 병든 사회는 국가도 병들게 합니다. 환경보호로 이 병든 국가와 사회를 지킵시다....."

(계속)